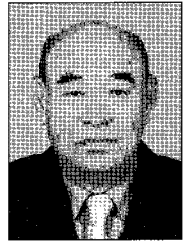


재래닭 복원 외길인생 53년



장상철 전 이사
경남 진주 집현

새벽이면 조용한 마을을 우렁찬 울음소리로 깨우는 경남 진주에서 전통 재래닭을 기르시는 우리협회 장상철 전 이사는 한평생을 재래닭 보존에 힘쓰면서 양계산업 발전에 공헌 한 분이다.

재래닭에 처음 관심을 기울인 것은 군 제대 후 본격적으로 사육하면서 1960년 길산농장을 세우면서부터 이다. 시골에서 흔하던 재래닭이 일제식민통치와 6.25 전쟁 등을 거치면서 그 종자가 거의 사라졌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시작한 달걀장사가 재래닭을 사육하면서 재래닭 복원으로 이어졌고, 국내 곳곳을 찾아다니며 재래닭 수집에 나섰다. 또한 재래닭의 기원과 함께 모계 품종을 구하기 위해 네팔, 방글라데시, 인도, 태국, 중국, 일본 등 동남아 일대를 수없이 다녀왔고, 국내에서 사라졌던 재래닭 품종들이 거의 대부분 복원하였다.



▲ 오랜 노력 끝에 복원한 재래닭

그리고 재래닭 보존사업을 위해 복원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소국계를 비롯해 백등중, 백세중, 동천홍 등 많은 품종의 닭들을 특허청에 상표 등록도 하였으며, 현재 기르고 있는 닭들은 12품종 1만

2천여 마리에 달한다. 이러한 노력으로 1991년 한국재래닭보존연구회가 창립되면서 시작한 제1회 한국양계박람회에서 출품한 재래닭이 1품을 획득한 것을 시작으로 양계관련 출품대회에서 상을 휩쓸었고, 재래닭 복원을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상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수 만 마리의 닭을 장애인에게 무료로 분양하는 등 장애인 권익과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고 있기도 하다.

2003년에는 지에스바이오텍을 설립하면서 기르던 재래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친환경경품질인증을 받았고, 그 이듬해엔 수출전환 대상업체로 지정되어 일본과 네팔에 닭고기를 수출했다. 이와 함께 농업인 개발과제를 통해 점도광물질과 한약재 부산물을 이용한 무항생제 닭고기를 생산하게 되어 닭의 면역사료제조방법에 대한 특허도 출원했다.

2005년에는 축산업 등록과 함께 축산물 가공처리법 및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받았다.

그동안 장상철 전 이사 KBS 체험 삶의 현장, KBS 6시 내고향, MBC 세상탐험 토종을 살리자 등에 출연하였고, 최근에는 MBC 당신이 국가대표입니다(8월 29일)에 출연하여 우리나라 재래닭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말씀하였다. 지금도 재래닭 보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좋은 유전자를 가진 재래닭을 국가차원에서 관리하고 지원해야 양계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